이슬람文庫 5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쿠란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JESUS IN THE QUR'AN

北美지역 무슬림학생 연합회 編著
韓国이슬람教 中央联合会 宣教部 번역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The Series NO. 5 OF Islamic Literature

말할지어다. 그는 오직 한분이신
하느님!
알라께서는 영원하사
낳지도 않고 낳아지지도 않았나니
그와 비교할 것이 없나니라.
(성 쿠란XC11장)

قل هو الله أحد ۝ الله الصمد ۝
لم يلد ولم يولد ۝ ولم يكن
له كفوا أحد ۝

JESUS IN THE QUR'AN

Originally Published by the Muslim Student Association of United States and Canada.

Translated and Published by Missionany Department of the Korea Muslim Federation.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 차　　례 ❖

쿠란에 비친 예수그리스도

1. 개요

예수(주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옵소서)의 이름은 이슬람교와 기독교에서 함께 통용되고 있으나, 그 뜻하는 바에 있어서는 두 종교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예수를,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는 무함맏(주의 평화가 임하옵소서)과 같이, 전능하신 하느님이 보낸 예언자 중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예언자들을 公平하게 받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도들은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간주하여 그를 최대로 숭배하고 있다. (註①)

이슬람교는 모든 타종교를 하나의 宗教로서 존중하고는 있으나 기독교만은 하나의 오도(誤導)된 종교로 보고 있다.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쿠란과 신약성서(註②)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은 그 중 가장 주된 상이점들이다. 즉, 쿠란에 의하면, 예수는 자신을 일컬어 하느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으며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최후의 예언자 무함맏의 도래를 예언했다는 점이다.

註 1) 초기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神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唯一神을 믿었고 예수는 단지 唯一神의 종복이자 사도로서 간주했던 것이다. 이점은 부록의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가"에 관하여』 라는 논문 참조바람. (Impact紙 No. 9. P. 4)

註 2) 그러나 "4개의 복음서(Four Gospels)"의 내용들은 新約에서도 각기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2. 예수의 탄생

예수는 하느님 알라께서 보내신 祝福받은 예언자로서,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하여금 하느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되찾게 하는 일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사도였고 하느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예를 부여받은 하느님의 종복이요 예언자였다. 그는 하느님의 기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주의 평화가 그녀에게 임하소서)의 몸에서 태어났다.

쿠란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느님이 마리아를 간택하사그녀를 깨끗이하여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도록 만드셨다. (3 : 42, 43) 천사들이 그녀에게 와서 예수 탄생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쿠란에 매우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보라! 마리아여! 하느님께서그대에게 기쁜 소식의 말씀을 주시나니, 마리아의 아들 그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로다.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빛나는 존재로서 하느님 옥좌의 측근자의 한 사람이 되리라.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내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며 많은 義人들 가운데 한 사람일지니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주여! 이 몸이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였거늘 어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나이까? 알라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뜻하시는대로 무엇이든 창조하시나니라. 하느님께서 무엇이건 명하실 때는, 단지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그런즉 하느님은 그에게 聖典과 지혜와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사 이스라엘의 어린 백성에게 하느

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리라.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라. 보라!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너희에게 왔노라. 나 하느님의 허락을 얻어서, 흙으로 새의 형상을 빚어 입김을 불어 넣으면 곧 새가 되리라. 날 때부터 눈먼자를 개명케하며 나병환자를 깨끗이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리니 이 모두가 하느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리라. 또한 너희가 먹을 것과 네 집에 쌓아 둘 것을 일러 주겠노라. 보라! 너희가 믿는다면 여기에 씬실로 기적이 있나니라. 내가 있기 이전까지의 聖典의 기록들을 완성하고 너희에게 금지된 것들을 계율화하기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 나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서 너희에게 왔나니 너희는 하느님께 예배를 충실히 근행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하느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너희들의 주님이시니 그를 경배하라. 이것이 곧 바른 길이로다." (3 : 45-51)

예수의 출생에 관한 쿠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즉, 마리아는 그 가족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와 헌신의 생활에 들어 갔다. 성령 (가브리엘 천사)이 남자의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여 사내아이의 출생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하느님의 기적에 의하여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먼 곳에 은거해 있다가 출산후 아기와 함께 사람들앞에 나타났다. 그들이 마리아를 불륜의 죄로 고발하자 그녀는 갓난 아기를 가르켰다. 그런즉 사람들은 요람에 있는 아기와는 대화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아기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는 말하기를, 보시오! 나는 하느님의 종복입니다. 하느님이 내게 성경을 주셨으며 나를 예언자로 명하셨읍니다.

하느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받은 자로 만드셨고 죽을 때까지 기도와 선행을 할 것을 분부하셨읍니다. 또한 하느님은 나를 어머니께 효성스런 아들로 만드셨으니, 건방지거나 신성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아니하셨읍니다. 내가 태어난 날과 죽을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그 날, 나에게 평화가 임하옵기를!"

위의 내용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바, 이것은 기독교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진술인 것이다. (19 : 16－34)

3. 예수의 사명

쿠란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느님은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예언자 무함만을 보내사 그에게 뚜렷한 계시를 내리어 기적을 행하게끔 하셨다. 예수도 하느님의 사자 또는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무함만과 유사한 존재였다.(註③) 이러한 사실은 쿠란의 기록 중 적어도 네 군데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다음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예언자들의 선례를 따라서 그가 오기 전까지에 계시된 내용을 완성 하도록 했느니라. 또한 우리는 진리의 빛이되고 지침이 되는 복음서(註④)를 그에게 전수하여 악을 피하는 자들의 훈계서인 旧約의 내용을 完成토록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하느님이 신약에 계시하신 내용에 의해서 판단할지니 하느님이 계시하신 대로 판단하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로다. (5 : 46-47)』

위에 언급된 내용은 다음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수가 하나님 알라의「福音」을 인류에게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4개의 복음서」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것을 기록한것이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註 3) 新約聖書 역시 그 헤브류판 3장 1절에서 "神의 사도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예수가 알라의 멧신저임을 긍정하고 있다. 코이네 희랍語 新約에 나타난 사도라는 말 "Apostolos"는 아랍어의 예언자, 라술(Rasoul)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註 4) 코히네 희랍語 新約에 나타나는 에반겔리온(Evangelion)은 福音(Good News)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나님 알라의 멧쎄지는 義人들에게 항상 "福音"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랍어의 브슈라(Bushra)와 일치하는 것이다.

기독교도들은 「4개의 복음서」가 각각 4사람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의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 네 사람이 다같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견지를 고수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이 점을 배격한다. 만약 그 네 필자가 공히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복음서를 집필했다면, 예수의 생애에 관한 기술들이 그렇게 不一致 할 수도 없으며 동시에 누락된 부분이 그렇게 많을수 없다고 하는 점이 지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4개의 복음서」란 예수의 전도사업 후 약 35년내지 65년이 지나서 쓰여진 것이며, 그것도 당시에 집필된 소위 「복음성경」중 교회에서 外經으로 배격당한 것들을 제외한 일부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또하나의 사명은 최후의 예언자가 到来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었는데 이 것은 쿠란에도 명백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가로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여 보라 나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사자로다. 내가 오기 전까지 율법서에 제시된 바를 이루고 또 내 뒤에 올 하느님의 사자에 대한 기쁜소식을 전하려고 하느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그 마지막 예언자의 이름은 "찬미받는 자" "무함맏의 별칭 : 아흐맏(Ahmed)"이니라. 그러나 무함맏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다만 마술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말하리라. (61 : 6)」

신약성서 역시 예수의 전도사업 후 「위로할자(Comfortor)」의 출현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註⑤) 기독교교회에서는 이 出現이 約定된 「慰労者」를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말의 어원과 기독교의 여러 분파에서 해석하는 의미를 결부시켜서 유추해 볼 때 기독교측의 견해는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註⑥)

따라서 무슬림들은 「위로자」라는 用語가 「무함맏」(평화가 그에게 임하소서)을 가리킨다고 믿는다. (쿠란21장 107절에 무함맏이 「万物에 대한 자비」로 불리는 점을 참조할 것).

註 5) 희랍어판 新約의 파라클레토스(Parakletos)는 "他人을 돕기 위해 보내진자" 또는 "자비로운 일을 베풀기 위해 나타난자"의 뜻을 나타낸다.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혹은 "협의자"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註 6) 이외에도 新約에 따르면 "聖靈"은 예수께서 기독교를 전파할 당시 이미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마태복음 12 : 18, 28) 따라서 성령의 出現은 미래사가 아니라는 이중적인 암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4. 예수의 기적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였다. 그는 소경을 눈뜨게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소생케할 수가 있었다. 그는 음식과 같은 단순한 사물에 대해서도 기적을 행하였으니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하늘로부터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다. (쿠란 5:112 –115)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실 그리고 요람속의 유아로서 사람들에게 행한 답변 또한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5. 예수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지 않았다.

무슬림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고 믿지 않는다. 그의 적들은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했으나 하느님이 그를 구원했던 것이다. 다음의 쿠란귀절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사도인 예수를 주였다고, 하나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으며 십자가에 못박지도 않았느니라. 다만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니라. 이제 명심할지니! 이를 동의하지 않는 자는 진실을 의심하는 자일지니 그들에게는 억측 이외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으니 알라께서 예수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 갔느니라. 진실로 알라께서는 전지전능 하시고 지혜로우시니라」 (4 : 157 - 8)

6.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하느님의 「独生者」이며 동시에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이는 聖父는 곧 聖子이며 聖神이라는 三位一体說(註⑦)에 기인하는 것이다. 카톨릭교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聖母)」로 신격화 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슬람교는 이러한 인식 方法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예수가 아버지도 없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점을 양친없이 출생한 아담의 창조와 같은 맥락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쿠란에 계시하시길;

『보라! 예수는 하느님앞에서 아담과 다를바가 없는 피조물이로다. 주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어 「사람이 되라!」하시니 아담이 창조되었도다. (3 : 59)』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견해에 반박하여 쿠란은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있다.

『유태인들은 에즈라(Ezra)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하면 기독교인들은 메시아, 즉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도다. 허나 이는 저들이 제마음대로 생각

註 7) 新約에 나타난 이 無知한 三位一体說의 근거는 요한복음 5장 7절의 "聖父와 그의 말씀과 聖靈은 하나일지니라"라는데 있는바 이것은 희랍어판 新約에도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첨가한 것이다. 新約은 수차에 걸쳐 예수를 "神의 종복"으로 기술하고 있다(마태복음 12 : 18, 사도행전 3 : 13, 26절 참조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는 神의 종복인 동시에 神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쿠란에 이르시길 『그리고 그들은 말할지니 : 자비로우신 알라께서는 인류의 자손들을 창조하셨나니 당신께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진실로 그들은 알라의 축복을 받은 종복이니라』(쿠란 21 : 26)

해서 하는 말인즉 옛부터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 不信者의 말을 저들이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로다. 하느님은 이들에 반대하나니 저들은 그 얼마나 편집되어 있는 것인가!』

쿠란은 예수가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註 ⑧)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는 하느님이 보내신 使者였으며 하느님의 사도였을 따름이니, 예수 이전에 주께서 보내셨던 여러 使者들과 다를바 없느니라. 또한 그의 어머니는 거룩한 여자였나니 이들 예수와 마리아 역시 이 地上위의 음식을 먹고 살았나니 주께서는 얼마나 명백한 계시를 내렸는가! 진실로 저들은 하나님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도다!』 (5 : 75)

이러한 기독교의 삼위일체설은 쿠란의 여러 곳에서 비난받고 있는데 (예를들어 4 : 171) 예수는 결코 자신의 神性을 인정하지 않았으며(註 ⑨) 오히려 최후의 심판날이 닥아왔을때 예수께서는 "나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唯一神 알라 한분만을 섬기도록 가르쳤나이다"라고 증언할 것이다. 이점은 다음의 쿠란 귀절에 명백히 기술되어 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주께서 가로되, 마리아의 아들 예

註 8) 예수가 인간이었다고 하는 점은 新約에서도 예수를 "인간의 아들(Son of Man)"이라 표현하므로서 明白한 사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예수는 문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인간의 아들인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예수가 하나의 "인간(Humanbeing)"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註 9) 이점에 관해서 新約의 귀절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자. "Jusus……did not count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필리핀개정표준판 2 : 6), "He did not think to snatch at equality with God" (新英文성서 개정표준판)

수여, 너와 너의 모친을 나 외에 두 神으로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느냐? 예수 말하되, 당신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것은 제가 한말이 아니오며 저는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사옵니다. 제가 그런 발설을 했다면 주께서 아셨을 것이옵니다. 주께서는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나니 저는 주님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 없나이다. 당신만이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아시나니 저는 주께서 명령하신「사람들아 너희들과 나의 주이신 알라를 숭배할 지어다. 그들과 있을때 제가 그들의 증인이었을뿐 主께서 저를 당신곁으로 데려가실때 그들을 지켜보시지 않았나이까. 진실로 당신께서는 모든것의 증인이옵니다」

7. 예수의 神性에 관한 福音書의 모순된 진술

위에 인용한 귀절들에 의하여 무슬림들은 예수가 그의 神性을 부인하거나 주장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교리를 설파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들어났다고 맏는다.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말씀들은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그 신빙성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다행히, 그의 神性을 부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 신약성서에 기록된 다음의 몇 귀절은 예수가 그의 신성이라든지 하느님과의 동일성 따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예수께서 이르되) :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니라」(요한복음서 8 : 28)

「내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한 분이시니라」(요한복음서 14 : 2)

「우리 주 하느님은 단 한분 뿐이신 주님이니라」(마가 복음서 17 : 29)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나이까?」(마태복음서 27 : 46)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누가복음서 23 : 46)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를지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독생자도 아닌 오식 아버지만이 아실지니라」(마가복음서 13 : 32)

뿐만아니라 복음서들은 각기 예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복을」(마태복음서 12 : 18)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종복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 주셨나이다」(사도행전 3 : 13)

「주께서 기름부어 정결케하여 메시아로 삼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복 예수」(사도행전 4 : 27)

(희랍어판 코이네 신약성서에 의하면, 「종복」에 해당하는 희랍어는 Pais 또는 Paida 인즉 아랍어 ghulam 에 해당하는 말로서 이는 「소년, 아들, 하인, 시종」의 뜻을 지닌다. 뿐만아니라, 예수가 종종 사용한 「아버지」라는 아랍어 Rabb 에 긴밀히 상응하고 있는데 이는 「양육자」 또는 「부양자」라는 뜻이다. 그런즉 예수의 교의로 본다면 하느님은 모든 인류의 양육자요 부양자인 셈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목할만 하다)

위에 열거한 성서 귀절들은 예수에 대한 무슬림들의 관념에 매우 확실한 근거인바, 말하자면 예수는 하느님의 충실한 종복이며 하느님의 사자로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보잘것 없는 피조물의 하나인 것이다.

8. 기독교와 예수의 神性

4세기 이래 기독교는 예수가 곧 하느님이며 삼위일체의 제2인자라는 교리를 고수해 왔으며 카톨릭교도들은 마리아의 神性까지도 믿고 있다. 그러나, 예수의 神性을 반박하는 소위 이교도의 무리가 기독교 내부에서 간간히 일어났었다. 예컨대, Sale이 말하기를 예언자 무함맏이 탄생하기 오랜 전부터 기독교도의 몇몇 분파— 코린파, 바실리드파, 카아포크라트파—에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그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던 그의 한 추종자였다는 사실을 믿었었다. 나아가서 코린트파와 바실리드파에서는 예수가 다만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단언했었다. 聖바나바스의 복음에도 이와같은 견해가 기록되어 있다.
초기 기독교인 가운데서 예수를 신으로 인정치 않았던 자들은 교회계급에 의하여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 정통교리를 부정하였기에 산채로 화형을 당한 사람들의 실례로는「차드윅」이 여러번 언급한 바 있다. 1612년 영국에서의 처벌사건은 그 마지막 實例인 것이다.

오늘날에도, 「유니테리언파」와 「크리스타델피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기독교 분파에서는 예수의 神性과 三位一体說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9. 결　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쿠란은 예수가 진정코 하느님의 종복이요, 하느님이 보내신 사자이며 하나님의 사도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예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으로부터 수많은 권능을 부여받아 기적을 행하였다. 그는 또한 하느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설교했으며 마지막 예언자 무함맏의 도래를 예고한 사람이었다.

참 고 문 헌

1. Fawzi, Farouk, *Muhammad in the Bible*, Studies in Islam: No. 5, 1964, Muslim Students' Association, Penn. State University, State College, Pa.

2. Pickthall, Mohammad Marmaduke, *The Meaning of the Golorious Qur'an*, Mentor, New York, N. Y., 1961.

3. *The New Testament*, John 17:3; Mark 17:29, Luke 11:20; John 5:36; John 12:47; Matthew 26:38, 39.

4. Sale, George, *Translation of the Qur'an*, F. Wa-rne & Co., London, p. 38.

5. Chadwick, John W., *Old and New Unitarian Belief* George H. Ellis, Boston, Mass., 1894.

(In addition, the Editor has found useful:)

6. Hastings, J., *Dictionary of Bible*, Chas. Scribner's Sons, New York, N. Y., (Revised Ed.), 1963.

7. Green, Thomas S., Reverend, *A Greek-English Lexicon to the New Testament*, Samuel Bagster & Sons Ltd., London.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가』에 관하여(※)

술레이만 무화씨르(Sulayman Mufassir) (註①)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註②) 독실한 신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의 믿음에 의하여 『다윗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다. 오늘날, 신심이 없는 「로크」세대는 풍자적인 노래를 만들어서 『예수·그리스도여, 그대는 누구요?』라고 야유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註③)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교회의 独断論이 오랜 세월동안 기독교세계를 지배해오다가 오늘날에 와서, 기독교들은, 예수가 정확히 누구였나에 대하여 더이상 아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세계가 각 분파로 분열되기 시작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神은 죽었다"라는 명제에 커다란 매혹을 느껴왔던 것이다.

유대교신자와 무슬림들은 줄곧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說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유대교가 예수의 사명을 인정하지않는 반면에 이슬람교는 예수를 하느님의 예언자라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허나 그가 누구의 아들

※) "Impact International"지에서 재게제.

註 1) 필자는 침례교 가정에서 태어나 27년간 침례 교인이었고 5년간 목사를 지낸바 있으나 무슬림으로 改宗했음. 여기에 사용한 쿠란의 인용은 Yusuf Ali의 번역본에 의거했음.

註 2) 제임스王에 의해 개조된 마태복음 22:42절을 희랍어 原本대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 "주님께서 기름을 칠하여 축복을 준 자에 대한 그대의 의견은 무엇이며 그는 누구의 아들인가? 그들이 답하여 가로되 데비드의 아들이옵니다"하였다.

註 3) "Jesus Christ, Superstar" 부로드웨이 "劇 오페라"중에서 인용.

인가 하는 문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가르는 기본적장벽이 되어 있으니 이들은 서로를 이단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들은 크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부인한다는이유때문에 이슬람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무슬림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느님과의 동일성을 가진 対象을 주장하는 자들이야말로 부인할수 없는 이단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시리크」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서와 예수의 말씀에 관한 신학자들의 연구를 면밀히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십수세기 동안 내려온 기독교전통과 그 신학적 깊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밑바탕이 되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신앙과이슬람신앙과의 간격이 그리 현격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쉐마(Shema)"(註④)라는 말을 한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교의 까리마(Kalimah・信条)(註⑤)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唯一神의 章(Surah Ikllas)(註⑥) 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스라엘人들이여 들을지어다, 우리 주 하느님은 한 분 뿐이라는 것을/』(註⑦) 예수는 그가 출생한 나라의 유일신적 교의를 그 자신이 확고히 했었던것이다.

註 4) 히브류語로 Shema는 "Yisrael Adonal Elphenu Adonai Ehad"이다. 旧約율법서 Deuternomy 6 장 4 절 참조.

註 5) Lailaha ill'Allah (알라이외에 다른 神은 없다)

註 6) Qul huwa Allahu' Ahad. (알라는 한분밖에 안계시다)

註 7) 마태복음 12 : 29. 신약성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러니, 하느님이 하나일진데 『배우자가 없는 분에게 어찌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쿠란의 질문은 논리정연한 것이다. (註⑧)

기독교는 女神說을 인정치 않으면서도 예수의 동정 잉태를 근거로 그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이슬람교는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느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사실인즉, 예수가 「아들」로 언급된 곳마다 쿠란에서는 항상 「Isa-bnu Maryam (마리아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에서는 그를 「하느님의 아들」로 주장하는 근거는 하느님이 육신을 갖고 마리아의 태내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설이나 또는 하느님이 한 천사 (로고스 혹은 첫 피조물)를 마리아의 태내로 보내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데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前者의 이론은 하나의 진실로 성립되기에는 너무 모순이 많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註⑨), 『인간의 시력은 하느님의 영광을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인간의 육신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 낼 것이며 또한 하느님의 영광이 어찌 인간의 육신 속에 쌓여있을 수 있겠는가?』 후자의 견해는 문자그대로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볼때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킬 뿐이다. 그러나 가장 뚜렷한 점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성서의 표현이 확실히 예수의 입에서 나왔었다고는 결단코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註 8) 쿠란 An'am 章 6 : 100.
註 9) 출애굽기 33 : 20(구약) "나를 보고도 살아 남을자 없나니라."

헤이스팅즈의 「성경사전」(註⑩)에도 『예수가 자신에 관하여 그 말을 사용했는지는 의문스럽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약성서 속에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흔히 언급했었다. 쿠란에서는 이를 異敎国, 주로 희랍과 로마의 풍습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희랍인과 로마인의 神들은 人神들이기 때문에 자식을 갖고 있었다. 기독교도들은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없는 말이다. 이점에서 그들은 옛날 이교도들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註⑪) 설사 예수 자신이 그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셈語의 관용어들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성서의 여러 귀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외인들도 그와같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이란 하느님의 神格을 띈 하나의 인간 혹은 한 민족인 것이다』(헤이스팅즈, 성서사전, P 143)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거나, 제한된 뜻으로 사용된 사실에 반하여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신약성서속에서 여러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해석을 자동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가 자기를 다만 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서 신학자들

註10) 개정판 1963. Charles Scribner's Sons N. Y. P. 143.
註11) 쿠란 Taubah 章 9 : 30

이 확인하기를, 예수가 이 말을 사용했다는 점은 예언자 에제키엘(註⑫)의 경우를 상기하게 하는 바, 즉 그는 「예언자」 또는 하느님의 使者라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느님이 마리아에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사도이자 그의 말씀이었으며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영혼의 참 뜻이었다』라는 쿠란의 내용(註⑬)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쿠란의 귀절은 순수 기독교가 견지하고 있는 가장 정수가되는 몇가지 사실을 확인해 준다. (1)예수는 그리스도이다. (2)그는 「사람의 아들」인즉 예언자 또는 하느님의 사자이다. (3)그는 하느님의 특별한 창조사업으로 동정녀로부터 탄생된 하느님의 말씀이며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축복된 사명인 영혼의 참 뜻이다.

동시에, 이 귀절은, 그가 하느님의 化身으로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해석을 결단코 부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의 귀절로써 확인된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그 使徒들은 믿을지니 「삼위일체」의 愚를 범하지 말지어다. 그것이 너희에게 이로울지니, 알라께서는 唯一하시기 때문이니라. 알라께 영광과 찬미가 있을지니 그분께서 아들을 갖기에는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도다. 진실로 알라께서는 하늘과 땅위의 만물의 주인이시로다』(註⑭)

만약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에서 어떠한 타당성을 찾고자한다면 셈語의 관용법을 참작할 수 있는데 이를 글자 그

註12) Hastings 전게서 P. 142
註13) 쿠란 Nisa 章 4 : 171
註14) 쿠란 Nisa 章 4 : 171

대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그리이스 세계에 속했던 예수의 후기 추종자들이 내린 문자상의 해석에 기인한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혼동이 일어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또는 그의 초기 제자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썼다면 이는 다만 하느님의 「종복」이라는 의미였을 뿐이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과 18절과 사도행전 3장1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성경판에는 예수에 대하여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하면 다른版에는 「종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신약성서는 원래 희랍어로 기록되어있는데 희랍어로 pais 또는 paida란 말은 원래 「사내」 혹은 「아들」에 해당하는 말로서 그 뜻은 하인, 시종, 부하로(註⑮) 해석되기 때문이다. 쿠란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지니, 자비로우신 알라께서는 인류의 자손들을 창조하셨나니 당신께 영광이 있으시옵소서! 진실로 그들은 알라의 축복을 받은 종복들이니라』 하느님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종복(들)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에서 쿠란과 바이블은 의견을 같이한다. 하느님이 인간으로 化했다는나 육체적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는 초기 기독교도들의 언어인 셈語의 관용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인들이 異教徒化하면서 「셈」語에 근거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상실되었고 異教徒 文化인 헬레니즘적 의미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이유때문에 4세기이후 기독교교회들이 「크리스도」 의

註15) A Greek English Lexicon, by The Rev. Thomas S. Green. B. A. Samuel Bagster & Sons Ltd. Lodon (n. date) P. 134.

성격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렸던 것이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지녔던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명백한 의미는 상실되었고 후기 개종자들은 이를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란 의미인양 歪曲시켰던 것이나. 후기기독교도들은 그들의 범신론적 입장에 따라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였고 예수의 唯一神的 교훈을 혼란케 하였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도들과 무슬림은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러했듯이 「크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낡은 異端的 神話論의 장난때문에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分裂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不幸한 일인 것이다.

안　　　내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 : 서울중앙사서함2865
☎ 794－7307・793－6908

※**부산지회** : 부산직할시 중앙동 4가77－3
☎ 44－3506

※**젯다지회** : Haji Ibrahim Jeon, P. O. Box 430
Jeddah, Saudi Arabia.
☎ 50020

이슬람을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기 주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슬람文庫 5

쿠란에 비친 예수그리스도

비매품

인쇄일 : 1978. 3. 6
발행일 : 1978. 3. 10
편집인 :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선교부
발행인 :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2－21
중앙사서함 2865 전화 : 794-7307, 793-6908
인쇄처 : 한국문화인쇄사 : 777－3930・3931

١٤٠٠ هـ
١٩٨٠ م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للنشر والتوزيع
شارع فهد السالم ـ عمارة الاوقاف رقم ٤
هاتف ٤١٤٢٢٠ ـ ص. ب. ٢٨٥٧ الكويت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٥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المسيح في القرآن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٥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المسيح في القرآن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